



3월 25일부터 공중보건 의사, 군의관 200명 추가 파견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 진료협력 강화, 추가 인력 지원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 -

3월 22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3월 21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1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한 17,771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0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도 7,052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중이다.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6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

금일 회의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하였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1개소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소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주인 3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 과목, 기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으로 4월부터는 협력병원별 역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여 진료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건당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 협력 여건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③ 군의관·공중보건 의사 등 인력 확충 방안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1일 군의관, 공중보건 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3월 21일부터는 지자체 의료기관의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 파견한 바 있다.

정부는 3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포함시 총 413명이 의료기관에 파견된다. 파견 기간은 4주로, 3월 26일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교육 후 3월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

정부는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적인 인력 투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④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방안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2023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5년 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⑤ 의사 집단행동 및 의대생 휴학 현황

3월 2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유효 휴학 신청은 3월 21일 8개교 361명으로 누적 총 8,951건 (재학생의 47.6%)이고, 휴학 철회는 없음, 휴학 허가는 3개교 3명임

아울러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당부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히며 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과정에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에 열려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이라면 얼마든지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내린 무거운 명령인 의료개혁을 정부는 국민을 위해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	책임자	과 장	유정민 (044-202-1600)
		담당자	서기관	이관형 (044-202-1602)
		담당자	사무관	신현준 (044-202-160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